

우리는 예전에 믿어 왔었는데.....

어느 날, 인터넷 친구가 나한테 이런 글을 보내 왔다.

“나는 예전에 모주석이 팔로군을 영도하여 일본군대를 물리치고 민족의 독립을 쟁취했다고 믿었는데 후에 사실은 국민당 군대의 피어린 전투(浴血奋战)와 미국의 도움으로 일본군을 패배 시켰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예전에 홍군이 일본군을 물리치기 위해 ‘장정(长征)’해서 산시 북부로 갔다고 믿었는데 후에 산시북부에는 근본 일본군대가 없었으며, 사실 홍군은 살길을 찾아 산시북부로 도망했고, 소련을 지원하러 갔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예전에 모주석이 영도하여 지주를 타도하고 토지를 분배한 것은 인민을 위해 해를 제거했다고 믿었는데 후에 대다수 지주들의 재산도 모두 근면한 로동으로 얻은 것인데 오히려 그들은 극악무도한 학대와 약탈을 당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예전에 4000 만 명의 인구가 굶어 죽은 1959년부터 1962년까지의 대기환은 천재(天灾)와 소련에서 강박으로 빚을 받아 갖기 때문이라고 믿었는데 후에 사실

그 몇년은 기후가 좋았는데 모두 대약진, ‘영국을 따라잡고 미국을 초과하자’, ‘세계혁명을 지원하자’로 조성된 것임을 발견했다.

나는 예전에 ‘항미원조’는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였다고 믿었는데 후에 연합국 군대는 근본 중국을 침략한 것이 아니며, 다만 김일성이 한국을 병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임을 발견했다.

나는 예전에 전심전의로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인민의 공복, 인민의 근무원을 믿었는데 후에야 그것은 탐오와 부패를 감싸는 베일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월남에 대한 반격전은 국가를 보호하는 자위반격인줄로 믿었는데 그것도 월남이 캄보자 Pol Pot (波尔布特)의 정권—본국의 1/3 의 인구(20 만 명 중국인을 포함)를 살해한 크메르 루주(高棉)악마집단을 뒤엎어 중공의 불만을 일으켰기 때문임을 발견했다.

나는 예전에 인민대표는 인민의 의지를 대표한다고 믿었는데 후에 그들 대부분은 중공관원과 억만부자

로 구성되었다는것을 발견했다.

나는 예전에 미국이 이라크(伊拉克)를 친 것은 석유 때문이라고 믿었는데 후에 이라크의 제일 큰 유전의 합동서는 중공석유화공에서 가져갔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예전에 황세인이 백모녀를 기만하고 억압했다고 믿었는데 후에 그것도 지어낸 것임을 발견했다. 본래 난니완(南泥湾)에서는 아편(鸦片)을 심었고, 방지민(方志敏)은 납치범이었고, 류문채(刘文彩)는 악한 지주가 아니었으며, 중미합작소는 항일을 하기위한 곳이었고, ‘한밤중에 닭이 우다’(半夜鸡叫)도 거짓이었다.

이러한 진상을 알게 된 나는 정말 놀랐다. 원래 나는 줄곧 거짓말 속에서 살고 있었다.”

나는 두 줄을 더해서 답장을 보냈다.

나는 중앙 CCTV 에서 나오는 ‘파룬궁’이 살인, 분실자살을 했다고 믿었는데 후에 파룬궁은 살생과 자살을 금지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만여 명이 중남해를 포위하였다고 믿었는데 후에야 파룬궁은 헌법에 따라 중남해 부근에 있는 신방반(信访办)에 찾아가 합법적인 수련환경을 쟁취하기 위해 평화롭게 요구를 제출하고, 정정당당하게 역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를 열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연변박해소식

천충민(陈丛民) 은 연변주 연길시공안국 국보대대에 납치되다

납치 된 이튿날 가족은 통지를 받았는데 소식을 들은 가족은 매우 비통해 했다. 3월 10일, 천충민은 행정구류로부터 형사구류(刑事拘留)로 바뀌져 안건은 이미 검찰원에 넘어 갔다.

60 세인 천충민은 1995 년전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는데 2000 년에 불법으로 1 년 노동교양을 받았다.



사진해석: 81 세 노인 오금선이 민속촌에서 여행할때 찍은 사진에는 몸 뒤에 커다란 둥근 광이 떠있었다. 함께 간 가족들은 그날은 흐린 날이어서 태양을 볼 수가 없었다 고 했다.

어머니의 이야기 (런재1)

나의 어머니 오금선(吳金善)은 많은 조선족 부녀들처럼 선량하고 현숙(賢惠)하며, 사리에 밝은 분이다. 본래 선량했기에 ‘真善忍(眞善忍)’을 매우 인정했고, 시작에는 딸의 수련을 지지하던 데로부터 점차 자신도 수련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대법 사부님의 가호(呵護)를 입어 어머니의 몸에서는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났다. (뒷면에 계속)

수술 전 사부님께 청을 들다

2000년 11월말인 어느 날, 납치와 이혼까지 경력한 내가 어머니의 집에 온지 몇 일 밖에 안 되었을 때이다. 모녀가 만났으니 유난히 반가웠다. 당시 어머니는 부엌에 내려가 불을 때고, 나는 어머니가 즐겨드는 불고기를 만들면서 그간 집에 있었던 일을 서로 주고받았다. 박해가 시작된 후 우리가정에서 이런 온화하고 따뜻한 분위기는 아주 적었다. 생각밖에 언니의 아들이 학교에서 금방 집에 들어선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어주었는데 찰나 한 우리 경찰들이 뛰어들어 나를 꼭 내리 눌렀다. 나를 납치하러 온 경찰이었다. 깜작 놀란 79세 고령에 등까지 굽은 어머니는 다급히 부엌에서 기여 올라 오시더니 진정하시고 돈 천원을 내손에 넣어주고, 가장 두꺼운 솜외투를 나에게 주면서 입으라고 했다. 이 시각 노인의 손은 떨고 있었으나 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더 깊이 느꼈으며, 생명에 대한 책임과 사명감을 더해 주었다. 나는 어머니를 위해 또 더욱 많은 착한 사람들이 모두 파룬따파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기위해 납치하려는 경찰들에게 두려움 없이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을 얘기해 주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당시 연로한 어머니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하지만 어머니는 내가 강제로 잡혀간 후에도 상상하기 어려운 곤란을 극복하고 가장 훌륭한 두 가지 일을 했다. 한 가지는 대법책을 비닐로 잘 포장한 후 층집에서부터 김치웁에 갖다 감쌌다. 그다음 또 방법을 대어 파룬궁 수련생을 찾아 집에 남아 있던 진상자료들을 전부 가져갈 수 있게 했다. 그때는 진상자료가 몹시 부족할 때이고 어머니도 진상자료는 대법수련생들이 중생을 구하기 위해 생명위험을 무릅쓰고 만든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납치당한 후, 어머니는 매일 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몇 달 후 나는 불법적으로 1년 노동교양을 받고 장춘 노동교양소에 수감되었다. 결국 어머니는 이 타격을 못 이겨 중병으로 쓰러졌다. 한 달 후에 악성종양으로 진단이 내렸고(내가 출옥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건강하였기에 나는 구체적으로 무

슨 암이였는가를 캐묻지 않았다), 의사는 수술을 해도 일년밖에 더 연장 못한다고 했다. 어머니는 한 시라도 살아서 딸이 나오는 날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수술대에 올랐다. 이렇게 어머니는 신변에 어느 자녀도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술을 받았다.

후에 어머니는 나에게 알려주기를, 당시 수술대에 오르기 전에 그는 사부님께 "리선생님, 나는 선생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딸이 곁에 없으니 스스로 화장실만 갈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청을 들었다고 했다. 어머니의 소원이 이루어져 수술은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그날 밤 능히 스스로 화장실로 갈수 있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정말 조금도 아프지 않았다"고 했다. 그렇게 많은 연세에 수술자리는 젊은이보다 회복이 더 빨랐다. 이 일은 어머니로 하여금 대법은 진실하고 가짜가 아니고 리선생님의 보호가 있으면 제일 안전하다는 것을 굳게 믿게 했다. 이때로부터 어머니도 진정으로 대법수련을 시작했고, 수술 후 종양은 완전히 없어졌으며 더는 재발하지 않았다.

아껴 모았던 돈으로 집을 사주어 진상자료를 할 수 있게 했다

어머니는 집이 동첸(动迁) 한 후 세집에서 살았다. 내가 노동교양소에서 돌아온 후 어머니는 내가 다시 박해 받을까 염려되어 나에게 돈을 주면서 혼자 세집을 맡고 있으라고 했다. 그리하여 나는 컴퓨터와 프린트를 사서 스스로 진상자료를 제작하여 일심으로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렸다. 대략 2002년 쯤 현지에서 수련생이 납치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분위기가 매우 긴장했고, 내가 세집에서 자료를 하는 것도 위험했다. 이 일을 알게 된 어머니는 한 번밖에 만나 보지 못한 사람에게 8만 여원의 거액을 맡겨 집을 사도록 했다.

마땅한 집을 찾고 수속하는 등 번거로운 과정을 하루에 끝내고 그날 밤으로 나는 집을 새집으로 옮기기까지 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혼자 원래 세집에 계셨다. 나는 팔십 여세인 퇴직금도 없는 노인이 자신의 모든 돈을 이처럼 주저 없이 내놓아 자료점을 위기에서 벗어

날 수 있게 한 것에 큰 진감을 받았다. 그것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주다니, 현재 거짓과 사기로 성행하는 이런 세상에서 이것은 어떠한경지인가? 딸인 나는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럽고 위대하다고 느꼈다.

자료점의 주력이 되다

어느 한 해, 나는 교외에서 세집을 구해놓고 어머니에게 이사 때문에 며칠간 못 올 것 같다고 알리자 어머니는 "나는 이미 꿈에 네가 구한 집이 농촌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벽의 흙이 다 떨어진 집인데 겁도 많은 너를 그냥 혼자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중이다."라고 말씀했다. 이리하여 어머니는 편안한 생활환경을 포기하고 아주 누추한 곳으로, 벽의 흙이 부실 부실 떨어지고, 화장실도 없는 집에서 나와 함께 살게 되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함께 사람을 구도하는 진상자료를 만들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원래 프린터가 작동하는 소리만 들어도 깜짝 놀라던 분이였다. 내가 노동교양소에서 나온 후 처음 맞는 생일 때 어머니는 특별히 내 생일을 쇠 주려고 왔는데 이튿날에 가겠다고 했다. 그런데 내가 프린터를 켜자 어머니는 겁에 질려 어떻게 만류해도 생일도 쇠지 않고 곧장 떠나셨다.

이러던 분이 후에는 진상자료를 만드는 주력이 되었다. 어머니가 친히 만든 호신부, vcd 와 진상자료는 당시에 사람을 구하는데 아주 좋은 작용을 일으켰다. 그뿐만 아니라 진상자료를 만들기 위해 자금이 수요 될 때면 어머니는 아낌없이 돈을 내 놓았다. 어머니가 성심으로 수련 했기에 사부님께서 어머니의 천목을 열어 주셨다. 어머니는 수많은 다채로운 파룬이 집에서 돌고 있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늘 조용히 누워서 사부님께서 펼쳐주시는 다른 공간의 미묘한 풍경을 감상하곤 했다. 후에는 그가 제일 즐겨 하던 화도도 한쪽에 밀어놓고는 다시는 만지지도 않았다.

중국어를 모르는 어머니에게 사부님께서는 늘 한글로 나타 내어 그더러 어떻게 할 것을 점화해 주셨다. 어느 날 어머니는 가족들과 함께 민속촌으로 여행 갔는데 그날은 흐린 날이어서 태양을 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에서 오직 어머니의 몸 뒤에만 커다란 둥근 광이 떠있었다.